

David Turner 박사, 요한복음, 세션 13,

요한복음 11:1-57

© 2024 데이비드 터너와 테드 힐데브란트

요한복음을 가르칠 때 Dr. David Turner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것은 세션 13, 예루살렘의 긴장된 시간, 예수께서 나사로를 살리심, 요한복음 11:1-57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데이비드 터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비디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초막절 기간 동안 요한복음 7장에 도착하신 후, 가을 초막절과 초막절 사이에 약간의 공백이 있는 10장에 도착한 이후로 예루살렘 사역에서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하누카, 겨울의 봉헌절. 우리에게 불행하게도, 특히 예수님에게는 불행하게도 긴장이 커지고 분노가 커지고 분쟁이 커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우리가 따라온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이야기가 흘러가는 방식을 따라가는 것은 유쾌한 경험이 아니지만,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야기를 바라보면서 우리 모두가 이해하고 삼켜야 할 현실의 분량입니다. 그러나 공관 전통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에서 우리는 아마도 요한이 행한 예수님의 모든 기적 중에서 가장 놀라운 기적, 즉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례대로 계속해서 서사를 따라가면서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고, 서사 자체에서 주목할 만한 몇 가지 구체적인 사항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야기가 흘러갑니다. 요한복음 11장의 이야기는 요한복음 10장의 끝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로 가셨다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그것은 요르단강 동쪽의 어떤 장소를 가리키는 것일 것입니다.

어디에 있는지 확신하지 못합니다. 그곳은 1040년에 예수께서 세례를 주셨던 곳, 혹은 죄송하지만 요한이 초기에 세례를 주셨던 곳으로 확인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1042년에 1장과 28절에서 이 모든 일이 요한이 세례를 주던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났다고 말하는 환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호한 사이트이며 이것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야기 줄거리의 목적상, 그것은 기본적으로 베다니가 어디에 있든 간에 이 작은 공백입니다.

그렇다면 이야기의 목적을 위해 예수님은 긴장된 논쟁과 반대를 떠나 요한복음 7장부터 10장까지에서 그를 대적하는 폭도들이 열병을 일으키기 시작하면서 린치했다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도시를 떠나 훨씬 더 조용한 시골로 나간다. 10 장의 끝 부분에서 우리는 이 장소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와서 요한이 결코 표적을 행하지 않았지만 요한이 이 사람에 대해 말한 모든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는 것을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요한복음 10장의 깊숙한 곳에서 세례 요한에 대한 흥미롭고 짧은 확인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5장에서 요한에 대해 간략히 언급하셨고 요한 자신이 그의 마지막 말씀을 하신 이후로 우리는 요한에 대해 많이 들어 본 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3장 후반부에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곳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그들의 신앙의 성격은 우리가 이미 살펴본 다른 본문들로 인해 다소 모호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요한복음 자체로 들어가게 됩니다. 한편, 예수께서는 다시 예루살렘 지역인 베다니에서 짧은 피정을 하고 계시지만, 예루살렘에서는 나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11장 1절부터 6절까지에서 예수께서는 자신의 친구 나사로의 병에 관해 알게 되었다고 나옵니다.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그 사람은 분명 바로 옆 마을인 베다니에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불과 몇 마일 떨어진 올리브 산 반대편.

그래서 예수께서는 나사로가 아픈 것을 아시고는 즉시 가서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께 향유를 부은 자매들 중 한 사람, 적어도 마리아는 예수께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분의 발을 닦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자매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말했습니다. “주님, 사랑하시는 분이 병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을 들으실 때 다소 난해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병은 사망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를 통해 영광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저자이자 편집자인 John이 5절에 괄호 안에 메모를 했습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와 그 자매와 나사로를 사랑하시므로 나사르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계시던 곳에 이들을 더 유하시니라 이 두 진술은 함께 작동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마르다와 그 자매와 나사로를 사랑하시므로 나사로를 보시고 나사르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들을 유하시니라. 그리고 제자들에게 유대로 돌아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유대로 돌아가자고 제안하시고 제자들에게 돌아가라고 하시자 제자들이 즉시 말하되 랍비 선생님이여 얼마 전에 거기서 당신을 죽이려던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8절에서 아직도 돌아가고 있나요? 우리가 이 일을 해야 한다고 확신하나요?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12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다시 여기 9절에 약간의 비밀스러운 표현이 있습니다. 낮이 12시간 있지 않습니까? 낮에 걷는 사람은 누구나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세상의 빛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밤에 다니면 빛이 없으므로 넘어지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서는 자신과 제자들을 빛이 있는 자, 다시 위험에 빠지더라도 괜찮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들은 빛이 없어 넘어지는 밤의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11장에 빛과 어둠에 대한 요한의 전체 가르침으로 돌아가는 언어가 있습니다. 그곳의 윤리적 이원론은 요한복음 1장 프롤로그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가장 최근에는 8장 절에서 소개됩니다. 12,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아마도 9장에서 마침내 빛을 볼 수 있게 된 맹인을 고치신 예수님의 비유로 설명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계속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설명하셨습니다. 우리 친구 나사르가 잠들었습니다. 나는 그를 깨우러 거기로 갈 예정이다.

죽음에 대해 완곡하게 말하지만 12절에서 제자들은 오해했습니다. 주님, 자면 나올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가 정말로 자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14절에서 나사로가 죽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에게 가자.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자신이 주목할 만한 일을 행하실 것임을 그들에게 밝히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은 그 일을 더욱 주목할 만한 것으로 만들 것입니다. 그러자 도마는 나머지 제자들에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고 대답했습니다. 이제 언급된 가장 최근의 죽음은 나사로의 죽음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이 도마가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 생각에 도마는 16절에서 제자들이 8절에서 예수님께 했던 말을 다시 언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유대인들이 당신에게 돌을 던지려 했고 당신은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도마가 자기와 함께 죽으러 가자고 말한 것은, 도마는 예루살렘에 위험이 있을 것이며 자기와 다른 제자들도 돌아가면 결국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는 곳이 그곳이라면 그들도 그곳으로 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우리를 17절로 인도합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마침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시며, 우리는 그로부터 이어지는 몇 가지 대화를 나눕니다. 먼저 그는 자신이 온다는 것을 알고 그를 만나러 가는 마르다를 만난다. 그리고 21절에서 마르다가 예수님께 가장 먼저 한 말은, 당신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으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녀의 믿음이 매우 흥미롭다는 것을 보여 주지만 아마도 그녀의 믿음은 이제 그가 죽었으니 그에 대해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 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데 국한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네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실 때 마르다는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 모든 것은 사실이고 사실이며 그녀의 믿음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22절에서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으리이다 이제라도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주실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래서 아마도 그녀는 그녀의 오빠를 잃었다는 사실에 절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나사로가 실제로 죽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네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녀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하실 것이라고 믿을지라도 예수님은 하나님께 나사로를 즉시 데려오라고 구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생각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어쨌든 마르다에게는 믿음과 믿음의 부족이 약간 결합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믿음의 부족보다는 믿음이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가 예수께서 무엇을 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그녀가 이해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은 흥미로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 종말론이라고 부르는 마르다의 논평에 대해 그녀는 최후의 심판과 그 전에 일어날 부활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25절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고 대답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 것이고, 더 흥미로운 것은 나를 믿고 사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마르다에게 “네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7절에서 마르다는 주님이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신 줄 믿습니다. 그녀는 부활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지만 나사로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확증합니다. 그래서 이 대화 후에 마르다는 돌아가서 마리아를 부르고, 이제 그녀의 여동생 마리아가 28절 이하에서 예수께 말하러 옵니다.

마르다는 메리에게 선생님이 오셔서 당신을 찾고 있다고 말합니다. 마리아는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로 갔습니다. 그런데 30절 말씀대로 예수님은 마을에 들어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분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분을 만나고 싶어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나가자 집에 있던 사람들은 아마도 그녀가 기도하고 울기 위해 무덤에 가는 줄 알고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32절에 따르면, 그녀가 예수께서 계신 곳에 이르자 그의 발 앞에 엎드려 마르다가 21절에서 말한 것과 똑같은 말을 합니다. 형은 안 죽었을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와 마리아의 대화는 그 이상으로 진전되지 않습니다. 이야기는 이제 예수님이 베다니 근처의 무덤 근처에 계시므로 상황이 좀 더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녀가 우는 것을 보시고 그녀와 함께 온 유대인들도 우는 것을 보실 때, 우리는 여기에 많은 감정을 포함하는 꽤 많은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제 생각엔 고대는 말할 것도 없고 성경과 심지어 현대 동양 문화에서도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울고 애도하는 것은 매우 공개적인 문제입니다.

현재 서구 사회에서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에도 울음과 애도를 참는 경향이 있고, 깊은 사랑에도 불구하고 장례식에서 엄청난 양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품위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나간 사람과 함께. 고대에는 그리 많지 않았고 근동에서는 현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심령에 깊은 감동과 고민을 품고, 심령에 깊은 감동과 고민을 품고 계십니다.

일부 학자들이 예수의 발이 실제로 땅에 닿지 않는다고 말한 소위 영적 복음에서 예수의 인성에 대한 또 다른 사례입니다. 나는 그들이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예수께서는 나사로의 누이들과 그들과 함께한 사람들의 슬픔에 깊은 감동을 받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그래서 와서 주님을 만나자고 하는데, 그 순간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은 종종 성경에서 가장 짧은 구절로 평가됩니다. 유대인들은 관찰자들과 함께 이 사실을 알아차리고 예수께서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주목합니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는 모든 것이 매우 따뜻하고 모호하며 감정적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과 그의 친구였던 사람들 사이의 큰 사랑과 존경, 친밀감이 드러나는 눈물겨운 장면입니다.

그러나 참된 사랑과 애통의 그 모든 아름다운 장면 가운데서 우리는 37절에서 일종의 불신이나 비방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들 중 일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분이 이 사람이 죽는 것을 막았느냐? 즉, 만약 그가 그토록 위대하고 강력하다면, 그리고 정말로 그의 주장이 사실이고 그가 메시아라면, 그는 왜 그의 사랑하는 친구가 죽도록 허용했을까요? 뒷이야기에 나오는 해설자의 해석적 설명을 통해 요한복음 11장을 읽는 우리는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셨고 그에 대해 뭔가를 하겠다고 암묵적으로 약속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37절의 이 말을 통해 이 사람들이 약간의 출현을 하게 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38절은 나사로가 실제로 살아난 사건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는 무덤에 도착했고 우리는 38절에서 그가 심히 슬퍼하며 무덤에 왔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킵니다. 입구에 돌이 깔려 있는 동굴이었다.

돌을 치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고대에는 방부처리를 하지 않고 더운 기후 속에서 부패와 그에 따른 향이 무덤 안에 스며들었을 것이다. 문을 돌로 덮는 이유 중 하나.

마르다가 큰 소리로 “주님, 벌써 냄새가 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거기에 4일 동안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40절에서 마르다에게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고 상기시켜 주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23절에서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 것이다. 내 안에 사는 사람도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당신은 이것을 믿습니까? 그래서 여기 40절에서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전에 말씀하셨던 것을 상기시키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돌을 가져갔습니다. 41절에 나와 있습니다. 나는 그것이 즐거운 경험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사람들은 무덤에서 끌어오르는 악취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아버지, 내 말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십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항상 내 말을 들으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여기 서 있는 사람들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믿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모두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인 요한복음 3장 16절 이후로 우리가 본 요한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반복되는 주제가 아닌가? 그 이전에도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셨다. . 때때로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셨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깨닫도록 하는 데 여전히 초점을 맞추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이르시되

그리고 죽은 사람이 나오는데, 그의 손과 발은 세마포로 싸여 있고 얼굴에는 수건이 감겨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수의를 벗고 가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를 포장에서 풀어 자유롭게 해주세요.

따라서 이 놀라운 본문을 통해 우리는 종종 요한복음에서 일곱 번째이자 궁극적인 표적으로 묘사되는 것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것은 확실히 복음의 정점이며 예수님의 부활 자체를 예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드라마의 최고점, 이 놀랍고 가장 놀라운 예수님의 기적에서 이제 우리는 45절에서 나오는 결론, 즉 이어지는 맥락을 보게 됩니다.

45절에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그 주변에 있던 많은 유대인들이 우리가 예상한 대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46절은 37절의 이전 설명과 매우 유사한 음으로 들립니다. 37절을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은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이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할 수 없었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9장에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것처럼 실제로 나사로를 살리셨고, 11장에서는 그보다 더 나아가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46절, 그 중에 몇 사람이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고하니라. 사실상 그들은 속담처럼 예수를 바리새인들에게 강요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산헤드린 공회를 소집했습니다.

우리는 7장의 끝 부분에 있는 산헤드린의 마지막 회의를 기억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무엇을 성취하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이 사람은 많은 표적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를 계속 놔두면 모두가 그를 믿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것이 대중 봉기와 같을 것이며 로마 통치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일이 포함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성전과 우리 민족을 빼앗아 갈 것입니다. 그것이 궁극적으로 이 시대로부터 한 세대 뒤인 60년대 중반부터 AD 70년까지 유대인 반란 동안 일어났던 일이라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49절 이하에서 가야바의 마키아벨리적 조언까지 보게 됩니다. 그 해의 대제사장 가야바가 나서서 말하되, 너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즉, 여러분은 실제로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온 민족이 멸망하는 것보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는 것이 너희에게 더 낫다는 것을 너희는 깨닫지 못하고 있느니라.

가야바의 이 말은 성경이 종종 자신이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잘 말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 해석학을 논의할 때 자주 사용됩니다. 때때로 이것은 인구 조사라고 불리며 가야바의 조언은 특히 구약의 성서 서술자와 성서 선지자에게 적용됩니다. 나는 가야바가 말한 것을 이런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의 타당성을 잘 확신하지 못하지만, 요한은 편집자 논평에서 51절에서 이 말을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신속하게 지적합니다.,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일꾼 중 한 사람으로서, 그해 대제사장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언했어요, 아, 그랬죠, 그렇죠? 그는 예수께서 유대 민족을 위해 죽으시고, 그 민족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아 하나되게 하시기 위해 죽으실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52절은 10장에서 목자가 다른 양 우리의 사람들을 하나로 모아 한 무리와 한 목자가 되도록 하기를 원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상기시킵니다. 그래서 마키아벨리주의자라고 부를 만한 가야바의 투철한 조언은 그들이 나머지 민족을 구하기 위해 예수를 처형할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일 예수의 운동이 더 커지도록 허용된다면 그것은

정치적 격변으로 이어질 것이고 로마인들이 들어와 그것을 진압할 것이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성전과 그 밖의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53절) 그들은 가야바의 계락을 받아들여 그 날 이후로 그의 생명을 죽이려고 모의하였다. 물론 그들은 이미 예수를 체포하여 없애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었으므로 이제 그들은 더욱 그렇게 하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54절은 예수께서 더 이상 유대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활동하지 않으셨다고 말합니다. 도리어 광야 가까운 에브라임이라는 마을로 물러가셔서 제자들과 함께 머무르시니라.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가 다소 눈에 띄지 않는 곳이듯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직면했던 위험을 피해 잠시 시간을 보내시러 가셨던 이곳 에브라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곳 에브라임은 어떤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성경의 베텔인 Beth-in 근처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15마일 떨어진 Et-Tell이라는 아랍 마을과 동일시되어 있습니다. 물론, 에브라임 지파인 에브라임 지파도 있었는데, 구약성경에서 땅을 할당받았던 곳으로 돌아가는 곳이었는데, 제 생각엔 사마리아 쪽보다 훨씬 북쪽이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것이 정확히 어디에 있었는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이야기를 전달하는 방식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아마도 이야기의 흐름에 따른 구조를 보는 한 가지 방법은 실제로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를 중심으로 하는 일종의 교차 구조로 보는 것일 것입니다. 물론 이야기의 배경은 예수께서 보내신 요단강 동편의 전환기(10:40~42)이며, 1:28에 있는 세례 요한의 사역 초기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이야기를 시작할 때 체포를 피하기 위해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사로의 이야기를 끝낼 때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이번에는 에브라임의 다른 장소에서 다시 한 번 살인 음모를 피하고 계십니다. 그런 다음 마르다의 슬픔과 그녀의 믿음을 살펴보고 이를 바리새인의 불신과 대조해 보겠습니다. 마르다는 나는 당신이 메시아라고 믿습니다.

분명히 바리새인들은 예수가 메시아임을 믿지 않았습니다. 마르다의 슬픔, 그리고 죄송하지만 마르다의 슬픔 직후 마리아의 슬픔과 믿음은 아마도 부활이나 나사로의 부활 이후에 구경하던 일부 유대인들의 믿음과 연관되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러한 모든 유사점을 의도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든 아니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야기가 예수께서 체포를 피하시는 것으로 시작하고 끝나는 것입니다.

inclusio 라고 불리는 문학적 포함 장치가 여기에서 작동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야기는 나사로의 부활을 중심으로 하며 나머지 단계가 이 지점만큼 깔끔하게 일치하는지 여부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이야기가 시작되고 그리고 그것은 나사로의 부활, 나사로의 부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내 생각에 흥미로운 또 다른 점은 베다니라는 용어가 사용되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요단강 건너편에 베다니라는 용어가 있고 예루살렘 근처에 베다니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개의 다른 Bethany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익숙한 마을은 예루살렘 근처, 분명히 예루살렘 바로 동쪽에 있는 마을이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는 우리가 정확히 알지 못하는 곳입니다. 사해 근처 트란스요르단 지역의 남쪽 끝에 한 곳이 있는데, 그 곳은 대략 5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는 전통을 가지고 있는데, 그곳은 예수께서 가셨던 곳이고 요한이 원래 세례를 주셨던 곳으로 확인됩니다. 나는 많은 사람들이 요한의 사역이 요단강 남쪽 지역에서 수행되었다는 것을 대중적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베다니라는 용어의 자음을 어원적으로 사용하여 베다니를 요르단 강 상류에 있는 베다니로 알려진 지역과 갈릴리 지역의 남동쪽 지역과 연결시키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 야르무크 강이요.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기 위해 10:40이 암시하는 요한복음 1:28의 일부 사본에서는 베다니 대신 베다바라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고려해야 할 또 다른 부분입니다.

베다니를 볼 때, 매우 특이하고 식별하기 어려운 곳인 것을 볼 때, 우리는 지형학적으로 예수께서 거주하신 땅의 지역을 상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요한 이 세례를 베푸는 곳으로 보는 관점에서 볼 때 여기 남쪽 지역이 될 것입니다. 중세 초기 비잔틴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전통에 따르면 요한이 세례를 받은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러나 베타니아의 이 지역이었다는 설이 있고, 오늘날에도 이 지역 어딘가에 야르무크 강의 협곡이 깎여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요르단강 너머의 베다니보다 더 일반적인 지도를 보면 그것이 정확히 어디에 있을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여기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르단강 너머의 베다니는 여기 어딘가에 있거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적어도 성경에 대한 대중적 이해에서 더 일반적이라고 생각되는 남부 지역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형도, 일종의 위성 접근 방식의 관점에서 땅을 볼 때, 이것은 아마도 약간 너무 어두울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우리는 여기 북동쪽이나 동쪽, 즉 실제로 갈릴리 바다의 남동쪽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곳 땅의 윤곽을 보여주기 때문에 좋은 지도입니다.

Carmel Ridge와 Esdraelon Plain을 여기 Megiddo Valley로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같은 관점으로 더 남쪽으로 가면 바로 여기 예루살렘이 보이고,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다고 생각되는 지역이 보입니다. 여기에는 5세기 전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북쪽으로 진행되는 요르단 열곡(Jordan Rift Valley)은 이 특정 지도에서 보는 것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당신이 예루살렘의 바로 동쪽에 있는 요르단강 근처에 있고 서쪽에 있는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있다면, 그 표현이 왜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지 이해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거기 사해의 높이는 대략 1,000피트, 1,200피트 정도입니다.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 해수면 아래입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약 2,600피트, 2,700피트 정도입니다. 그래서 고개를 들어 서쪽을 보면 예루살렘에 가려면 반드시 거쳐야 할 땅이 보이는데, 오히려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망원 렌즈를 사용하여 동일한 관점을 취하고 조금 더 넓은 각도에서 이전에 보았던 것과 대략 동일한 관점을 봅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사진에서 거의 튀어나오지 않은 마지막 능선이 있는 여기 올리브 산까지 멀리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가 남쪽 위치라면 이것은 예수께서 횡단하셨을 지역의 유형이었을 것입니다. 비록 북쪽에 있었다고 해도 요단 계곡으로 내려왔다가 우회전하고 서쪽으로 방향을 틀어 이런 식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을 것입니다.

일단 예루살렘에 올라 방금 덮은 영토를 뒤돌아보면 아마도 오늘날 올리브 산 바로 동쪽에 있는 베다니와 동일시되는 아랍 마을인 알 아자리아(Al-Azharria)의 관점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 여기 프로젝터의 해상도가 조금 더 좋다면 여기 요르단 계곡 뿐만 아니라 요르단 강 반대편에 있는 요르단의 일부 능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제 생각엔 바로 여기 이 작은 그림자, 구름 속에서 거의 보이지 않는 마지막 작은 능선이 바로 그 지역인 것 같아요.

따라서 여러분은 요르단 강이 어디에 있었는지 보기 위해 동쪽으로 약 15마일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아랍 마을인 알 아자리아(Al-Azharria)는 잘 알려져 있으며 여러분은 그 땅의 일반적인 위치와 그것이 예루살렘에 얼마나 가까운지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 그곳은 불행하게도, 울타리라 불리는 것이 실제로는 벽인 것이 아랍인들이 이스라엘인들에게 자행한 폭력으로 인해 동예루살렘에서 이 아랍 마을을 차단하고 있기 때문에 논쟁의 여지가 있는 곳입니다.

그들은 벽을 세웠습니다. 나는 벽을 보기 싫지만 그들이 왜 그렇게 했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마을에는 나사로의 전통적인 무덤이 있는데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누구나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근처에 1세기의 무덤이 있으니, 이곳이 아마도 그런 장소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확실히 이상하지 않습니다. 전문 고고학자들이 이 유적지를 평가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그랬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오늘 거기에 가서 볼 수 있고, 기본적으로 당신이 들어가는 곳은 바로 이 아래 부분입니다. 오늘날에도 그 장소를 기념하는 다양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날 나사로를 위해 행해진 장례 관습을 실천했다면 어땠을지 여러분에게 어떤 생각을 주려고 시도하는 도식이 있습니다.

11장에서는 동굴이 있었고 문 앞에 돌이 굴러져 있었다고 나옵니다. 그 동굴이 천연 동굴이었을지 아니면 나중에 이 복음서에서 예수가 장사될 요셉의 무덤의 경우처럼 기본적으로 바위를 깎아 만든 동굴이었을 가능성이 더 높은지는 정확히 명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동굴 표면과 평행하게 조각된 통로가 있는 개구부와 약간의 노력을 가하면 돌이 그 통로로 앞뒤로 굴러가는 일종의 배열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문 바로 앞에는 돌이 내려와 거기에 머무르고 붐을 일으키며 중력이 돌을 그 자리에 고정시키는 일종의 움푹 들어간 곳이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무덤에 들어가면 별도의 방, 첫 번째 방, 두 번째 방이 있을 수 있으며 벽감은 시체를 넣을 수 있도록 벽에 수직으로 잘려져 있을 것입니다. 시체가 분해되고 공간이 확보된 후에 아마도 나중에 프리미엄을 받고 뼈를 꺼내어 뼈대에서 분리한 다음 상자에 넣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무덤을 살 수 있을 만큼 부유했다면 아마도 뼈를 담은 상자도 마련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경우 에는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무덤이 어떤 모습이었을지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여행을 가다가 갈멜산에 올라가서 거기 므깃도 지역에 있고 버스를 타고 계곡에 있는 므깃도 방향으로 내려간다면 아마도 바로 이 곳으로 데려갈 것입니다. 그 곳을 따라 가다 보면 주요 고속도로를 따라 바로 구르는 돌 무덤이 있습니다. 바로 이 곳이 위치한 곳입니다. 하지만 고대에는 그 날 이후 누군가가 디스크를 올려놓은 것처럼 디스크를 고정하기 위해 이 강철 밴드를 사용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르는 돌무덤의 한 예일 뿐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여러분이 볼 수 있는 그런 무덤이 많이 있는데, 아마도 어떤 면에서는 나사로의 무덤과 비슷하고, 더 중요하게는 예수의 무덤과 비슷할 것입니다. 구르는 돌 무덤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세히 설명합니다.

19장에 이르면 이에 대해 보여줄 슬라이드가 더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의 주석적 문제 중 일부는 우리의 관심을 끌고 생각하게 만드는 몇 가지 사항입니다.

복음의 다른 모든 것에 비추어 요한복음 11장의 문학적 기능의 관점에서 볼 때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절정의 일곱 번째 표적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서스펜스라는 단어를 잘못 쓴 것 같아요. 그렇죠? c 대신에 s가 필요해요. 어-오. 그러므로 서스펜스는 기적 그 자체에 대한 삼중적 구성의 일종입니다.

즉,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의 대화가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예수님은 여기서 지체하시고 나사로가 지나가도록 허락하고 계십니다. 그런 다음 예수께서는 마리아와 대화를 나누시고 마르다와도 대화를 나누십니다.

제가 그걸 거꾸로 이해한 것 같아요. 마르다와 그 다음 마리아. 그리고 마침내 무덤에 도착해서서 기적으로 치유하시고, 살리시고, 나사로를 살리시는 방식은 아마도 그 수난이 일어날 방식을 예상하고 있을 것입니다.

흥미로운 비교와 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과의 초기 대화에서 예수님의 비밀스러운 언어는 긴장감을 조성하고 낮과 밤에 관해 말씀하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하게 만드는 데에도 흥미를 줍니다. 21절부터 27절까지의 예수님과 마르다의 대화 방식도 요한복음의 종말론에 비추어 보면 흥미롭다.

우리는 이미 5장의 관점에서 예수님께서 때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미 조금 논의했지만, 지금은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때입니다. 사실,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그의 음성을 듣는 것은 그들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삶으로 데려가는 일종의 부활이며, 예수께서는 이것이 마지막 날의 부활을 예상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마르다와 대화하실 때 마르다는 마지막 날 부활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그에게 확인했습니다.

그런 다음 예수님은 우리가 실현된 종말론이라고 부르는 용어로 그녀에게 더 말씀하십니다.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며, 죽은 사람이라도 나를 믿는 사람은 살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실현된 미래의 종말론은 때때로 개시된 종말론이라는 제목 아래에 포함되는데, 요한복음과

신약 전체에서는 둘 중 하나가 아니라 둘 다입니다. 아마도 여기서 기적에 관해 가장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점은 직접 청중뿐만 아니라 가야바와 공의회가 그것에 대해 숙고하면서 그에 반대되는 반응을 보인다는 점일 것입니다.

그러니 마리아, 마르다, 그리고 그들의 친구들과 함께 거기 서서 예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고, 돌을 굴러 옮기시고, 그의 몸에서 나는 악취로 얼굴을 거의 맞을 뻔하신 것을 보고, 그 다음에는 어땠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그를 부르시는 것을 보고, 그 일이 바로 여러분 눈앞에서 펼쳐지는 것을 실제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랬다면 어땠을지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보면 45절이 여기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아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마리아를 방문하고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유대인 중에 많은 사람이 그를 믿었더라. 네가 그것을 보고 어찌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글썄, 어떻게? 46절에 보면, 거기 서 있는 자들 중 어떤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심지어 예수가 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가서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고하니라. 이로 인해 그들은 모임을 소집했고, 단순히 두 명도 아니고 세 명도 아닌 수많은 증인이 있다고 말하는 대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증언할 수 있는 수많은 증인이 있습니다.

이제 마침내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그가 누구인지 인정해야 할 때입니다. 누군가는 그것이 합리적으로 일어났을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물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모든 것에 비추어 볼 때 가야바와 그의 다소 수수께끼 같은 예언을 보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것이 본질적으로 정치학이 현실정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것이 이것이 진행될 방식이라고 말하는 것과 거의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분과 지위를 유지하려면 이 사람이 내려가야 우리가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는 예수께서 일으키고 있는 운동이 로마에 대한 대중의 반란이 되어 로마인들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정말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것이 그가 예수를 메시아적 인물로 생각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여기 51절에서 가야바가 정치적 전략, 현상 유지

방법으로 의도한 이 진술이 예언으로 간주된다는 흥미로운 편집 논평을 합니다. 그분께서는 이 말씀을 스스로 하신 것이 아니라, 신권적인 개인으로서, 그 해의 대제사장으로선 선지자로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유대 민족을 위해서, 그 민족뿐 아니라 흠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아 하나되게 하기 위해 죽으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전체에서 아마도 가장 예상치 못한 출처에서 나온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놀라운 이해입니다. 대제사장이면서 잃을 것이 가장 많았던 이 사람은, 예수가 옳고 그들이 틀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는 우리가 예수를 쫓아내는 방법이라고 말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당시에는 깨닫지도 못했던 방식으로 정말 참된 신학과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묘사하고 있다. 그러면 요한복음 전체에 비추어 볼 때 나사로를 살리는 일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영상에서도 나사로가 마지막에 하나님 백성의 궁극적인 부활이라는 의미에서 부활한 것이 아니었고, 그의 몸은 분명히 한 번 죽도록 정해진 몸이었기 때문에 부활이라고 언급함으로써 제가 잘못 말한 것 같습니다. 다시. 그에게는 당시 바울이 영광스러운 몸이나 하늘에 속한 몸이라고 부를 수 있는 몸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소생되었습니다. 그는 자랐습니다. 그분은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몸으로 변화되었다는 의미에서 부활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고양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표징이 요한복음에 배치되는 방식에 따르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의 신분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고자 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것은 확실히 요한의 절정의 표징입니다. 그의 임무. 그리고 우리는 두 가지 이유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기호의 성격뿐 아니라 문학적 배치도 그렇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가장 놀라운 일입니다. 그분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일을 시작으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부패하기 시작한 사람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는 것은 그 의미를 무색하게 합니다.

그런 사람을 무덤에서 이끌어낸다는 것은 확실히 이 복음서에서 가장 놀라운 일입니다. 또한 문학적 배치로 인해 클라이막스적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행하실 마지막 표적이자 제자들과의 작별 담화입니다.

나중에 부활하신 몸으로 그들에게 나타나는 것도 하나의 표징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아마도 요한복음 20장의 끝 부분도 그렇게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높은 지점까지 올라가는 기호와 그 문학적 배치에 관한 한, 이것은 확실히 절정의 기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2장에서 성전을 정결케 하는 권한이 무엇인지 물으셨을 때 어떻게 반대하셨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에 대한 반대는 5장에서 집중되었고, 이 기간 동안 7장부터 구축되어 왔습니다. 뭐라고 요. 그러나 여기 11장에서는 예수에 대한 반대가 극에 달하고, 가야바 공의회에 기초하여 예수를 제거하고 처형하겠다는 공의회 의 확고한 결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53절, 그날부터 그들은 그의 목숨을 빼앗으려고 모의했습니다. 그렇다면 문학 작품으로서 11장은 예수님을 반대하는 2장에서 시작된 이 과정을 절정에 이르게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의 공개적인 부분을 읽는 독자로서 우리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그 마지막 부분은 다음 장에서 찾을 수 있으며, 18장에서 시작되는 이별 담화와 열정 이야기로 전환됩니다. 따라서 이 장은 여러 면에서 중추적인 장입니다. 예수의 공생애가 실제로 끝나가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한 챕터만 더 하면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 장이 신학적으로 중추적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의 이야기에서 나사로의 부활은 분명히 예수님의 부활을 강조하고 예상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더 큰 예수님의 부활이 있을 것입니다.

eimi)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 나는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여기에는 오늘날 베다니에 있는 성 나사로 교회에 있는 불가타역에서 나온 멋진 라틴어 버전이 있습니다. 나사로가 그림에 없기 때문에 나는 이 그림이 다소 흥미로웠다.

그런데 작가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밖을 내다보며 자기를 무덤에서 부르시는 분과 그의 누이들이 예수님께 간청하고 예수님께서 자기 형제와 군중을 돌봐 주시는 것을 찬양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위에 서있다. 그러므로 아마도 여기에 그 자매와 함께 애도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구경꾼들이 있는데 그들 중 일부는 결혼질을 하고 있는데 아마도 이미 바리새인들에게 소식을 전하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나는 이것이 이 이야기를 보는 매우 흥미로운 방식이며, 우리가 영광을 돌리기 위해 존재하는 주님께 초점을 맞추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을 가르칠 때 Dr. David Turner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것은 세션 13, 예루살렘의 긴장된 시간, 예수께서 나사로를 살리심, 요한복음 11:1-57입니다.